



광남일보



주간 제 8095 호 대표전화 062-370-7000

GwangNam.co.kr

2026년 6월 1일 월요일 (음력 4월 16일)

민주 탈환 vs 무소속 수성...진도군수 선거 '안갯속'

이재각·김희수 맞대결...변화론과 안정론 '팽팽' 민주당 제명 후 첫 승부...현직 프리미엄 시험대 논란·조직력·정권효과 변수...막판 표심 향배 주목

6·3지방선거 D-2

6·3 지방선거 본선 레이스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전남 진도군수 선거가 서남권 최대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현직 군수의 민주당 제명이라는 이례적 변수를 안고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국정 연속성을 내세운 무소속 김희수 후보와 민주당 탈환에 나선 이재각 후보의 맞대결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안정과 변화를 놓고 유권자들의 선택이 갈리면서 지역 민심도 쉽게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분위기다.

이번 선거는 당초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됐던 김희수 현 군수가 각종 논란 끝에 제명되면서 판세가 크게 흔들렸다. 민주당은 경선을 통해 유권자 중심 출신인 이재각 후보를 선출해 맞불을 놓았고, 현직 프리미엄과 민주당 조직력이 정면 충돌하는 구도가 형성됐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를 두고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승부"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군수가 당선된 경험이 있는 데다, 현직 군수에 대한 평가와 정당 지지 성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표심의 향방을 가늠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분위기는 현장에서 감지된다. 진도읍의 한 주민은 "현직 군수의 발언 논란이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고 진도 이미지도 영향을 미쳤다"며 "주변에서도 이번 선거에서 그 부분이 평가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주민은 "군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점을 높게 보는 주민들도 적지 않다"며 "추진해 온 사업들을 마무리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엇갈린 민심 속에서 두 후보는 각자의 강점으로 막판 표심 공략에 집중 중이다. 김 후보는 민선 8기 국정 성과와 행정 경

험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 지정과 예산 확보 성과 등을 부각하며 '중단 없는 진도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해상풍력 사업과 연계해 주민들이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바람 연금'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맞서 이재각 후보는 변화와 혁신, 민주당과 중앙정부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책 추진력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정권과 보조를 갖춘 예산 확보와 국책사업 유지를 통해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주요 공약으로는 국립김산산업진흥원 유치, 통합 김 산업 연구개발 허브 구축, RNA 백신 연구개발 특화단지 조성 등을 약속하며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선거전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지역 평가에서는 각종 변수의 영향력에도 주목하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들이 유권자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현직 프리미엄과 민주당 조직력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큰 힘을 발휘할지가 승부를 가를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민주당 간판만으로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과 함께 정권 초반 예산 확보와 정책 추진력을 앞세운 민주당의 탈환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공존한다.

지역 평가 관계자는 "현재 민심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직 군수의 행정 경험과 안정성을 높게 평가하는 층이 있는 반면 지역 분위기를 쇄신할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김 후보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수사 진행 상황, 민주당 조직력의 실제 결정 정도 등이 막판 표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며 "투표일이 열릴 때까지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선거"라고 전망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각 진도군수 후보가 유권자의 목소리를 들은 뒤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무소속 김희수 진도군수 후보가 지역 내 행사장을 찾아 지역민을 만나 인사를 전하고 있다.

통합특별시장 첫 일꾼 선출...사전투표 열기 '후끈'

전남 38.95% 전국 1위·광주도 27.83% 3위 전국 평균 23.51%...기초 격전지 관심 이끌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전남이 전국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광주 역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며 전국 3위에 올랐다.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남 오후 6시 사전투표 마감 결과 전남의 사전투표율은 38.95%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23.51%보다 15.44%p 높은 수치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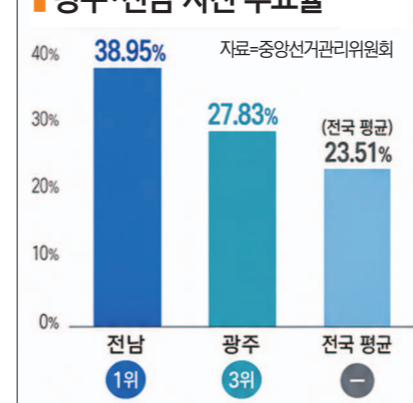
전남에서는 선거인 155만8206명 가운데 60만6907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사전투표율 31.04%와 비교하면 7.91%

p 상승했다. 광주도 전국 평균을 웃도는 27.83%를 기록하며 전북에 이어 전국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선거인 118만9519명 중 33만1074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는 지난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17.28%보다 10.55%p 높은 수준이다.

전남 시·군 가운데서는 신안군이 61.31%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이어 진도 55.03%, 함평 54.21%, 강진 52.16%, 담양 51.89%, 장흥 50.71%, 구례 50.44%, 곡성 50.34%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여수는 29.65%로 전남에서 가장

광주·전남 사전 투표율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순천과 광양은 각각 33.05%, 목포는 33.55%를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초대 전남광주통합 특별시장과 통합교육감, 통합특별시장의회 의원을 뽑는 첫 선거라는 상징성이 투표

참여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일부 지역에서 투표 참여 열기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가 맞붙고 있는 동구가 32.19%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반면 광산구는 24.64%로 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낮았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사전투표율이 본투표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전남 일부 접전 지역과 광주 동구 등 주요 승부처에서 높은 사전투표율이 나타나면서 후보 진영 간 막판 표심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더불어 민주당

전남 해남 출생
해남중 30회·목포고 28회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학과 졸업 (사회학 박사)
(전) 제21·22대 국회의원
법안 발의 1등, 본회의 출석률 100% (25.12.31. 기준)
4년 연속 국회의장상 수상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5회 수상

압도적 성장 더 큰 전남광주

1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전남광주의 미래를 위해 투표하세요!

6.3.(수)
오전 6시~오후 6시

선거광고 | 이 신문광고는 공직선거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 (광고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